

“흥에 겨워 온몸이 가뿐…음악이 藥이랍니다”

음악치료후 가족 앞에서 공연 광주 꽃메요양원 할머니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지난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용산동 꽃메요양원 주간보호실, 49.5m(15평)의 공간에 27명의 할머니가 빨간색 산타 모자를 쓴 채 캐럴에 맞춰 마리카스·핸드벨·슬라이스벨·랩버린·손바닥 캐스터네즈 등을 연주하고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띤 할머니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자녀들 앞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흔들었다. 할머니들은 한 곡의 음악이 끝날 때마다 아들·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을 교환했다. 어머니를 바라보던 아들·딸들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날 학주공연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꽃메

요양원에서 열린 ‘2010 보호자 간담회’ 행사 중 하나다. 꽃메요양원은 한달 전부터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연을 펼친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88

세. 67세부터 100세까지 장기요양 1·2·3등급을 받은 할머니 27명이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꽃메요양원의 할머니들은 ‘타악기 합주’를 하면서 친구가 되고, 마음도 건강해졌다.

이날 공연을 한 최하심(79) 할머니는 아

들 양병승(5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의 손

을 꼭 잡은 채 슬라이스벨을 음악에 맞춰 흔

들었다. 지난 4월 치매 증상 때문에 최 할머

니를 꽃메요양원에 모신 양씨는 “어머니의

이런 학주 모습을 처음 보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즐거워하시고 기억력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을 마치자 자녀들은 분주해졌다. 준비한 꽃다발을 어머니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김금임(88) 할머니에게 아들 서정범(48·광주시 동구 산수동)씨가, 김순(77) 할머니에게 딸 박희숙(53·광주시 남구 봉선동)씨가 각자 사운 꽃다발을 드렸다. 할머니들은 “뭐 이런 걸 사오나?”며 편장을 주다가도 행복한 표정을 가득 지어보였다.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구영웅(71·前 살례시오초교 교감) 지휘자는 “음악 치료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이끌고 ‘흥’을 돌을 수 있었디”며 “앞으로도 좋은 프



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꽃메요양원 송용심(여·55) 원장도 “요양원의 최고 연장자 지말여(100) 어르신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최근 2등급으로 건강이

좋아지셨다”며 “작고 소박한 학주 발표회였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련해지면서 따뜻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수 유노윤호 광주시에 쌀 140포



가수로 활동 중인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23일 광주시에 쌀 140포(10kg, 3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광주시는 기증받은 쌀을 각 구청을 통해 중증 장애인 35 가구에 가구당 3포, 새날 학교에 35포를 전달했다.

‘슈퍼스타 K2’ 김은비양 모범청소년상



케이블 TV 음악전문 채널인 M-net 미디어가 주최한 ‘슈퍼스타 K2’ 프로그램에서 톱 6에 선정된 김은비(송원여고 2학년)양이 모범청소년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김선남씨 통일운동 기여 ‘대통령 표창’



김선남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 북구협의회장이 사회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평통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은 지난 22일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박홍석 광주지역 평통부의장이 전수했다.

광주여성단체협 바자수익금 이웃돕기



김행자 광주여성단체협회 회장은 22일 KBC 광주방송국에 ‘사랑의 대바자회’ 수익금 전액인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내방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 원장)씨 ▲유제표(“행정지원실장)씨

▲이형철(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씨 ▲김재학(“총무차장)씨

“지역주민 사랑 받는 서민은행 만들 것”

MG대광새마을금고 새 이사장 안근원씨



“지역밀착형 서민은행으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것은 물론 금융소외계층 등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11대 MG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출된 안근원(49·사진) 당선자의 포부다.

‘MG’는 ‘마을금고’의 영문 머리를 자로 전국 마을금고 공동브랜드다.

대광새마을금고는 1982년 8월 서남동에서 출발한 본점과 동명동, 지산동 2곳에 지점을 운영 중이며 자산 규모만 1000억원이 넘은 우량금고다.

4선에 도전했던 현 이사장을 누르고 이사장에 선출된 안 당선자는 광주·전남지역 150개 달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 중 유일한 40대로 최연소 이사장이란 타이틀로 얹게 됐다.

안 당선자는 지난 1985년 대광새마을금고에 직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자산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광새마을금고를 우수 금고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왔다.

안 당선자는 금고의 수익금 중 일부를 2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로 지금하고 동구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단체에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 당선자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금고의 자산규모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또 “회원들과 지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당선자는 2011년 1월 25일부터 신임 이사장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며 4년동안 대광새마을금고를 이끌게 된다.

안 당선자는 금고의 수익금 중 일부를 2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적공, YWCA 성빈여사 방문해 위문금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양기수)는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남동 광주YWCA 성빈여사를 방문, 2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年 2천억 절감 효과 ‘교량 공법’ 개발

의산국토관리청 김용주씨 ‘옥조근정 훈장’



국내에서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상부개방형 교량 가설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무원이 옥조근정 훈장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의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살리기사업팀 김용주(46·6급 시설주사) 주무관. 훈장 수여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중앙청에서 열린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상부개방형 교량 가설공법을 개발, 이를 자신이 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사례는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돼 내년 초에 책자로 소개될 예정이며, 2010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도 뽑혔다.

김 주무관이 개발한 교량 가설공법은 기존 거더(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빙)가 삼자형인 것과 달리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이를 공사현장에 적용할 경우 기존 공법에 비해 철강재 절감은 물론 교량 전체 구조물의 경량화를 이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의산국토청은 이 공법을 국토 해양부 소관 공사로 전면 확대하면 연간 약 1000억 원, 전 부처 및 지자체·공

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공법은 올해 초 국내 발명 특허를 획득했고 국제 특허출원도 마친 상태다. 또 미국·일본·중국 등에 특허 등록을 진행 중이다.

김 주무관은 “너무 큰 삶을 밟게 돼 얼떨떨하다”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특히 현재 맡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1991년 공직에 첫 발을 디뎌 19년 10개월여 동안 의산국토청 도로국·건설관리실·하천국·국도사무소, 국토부 수자원국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펼쳤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이정복씨 15년째 이웃돕기

고흥 금산면 대흥리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사 이정복(65)씨가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면사무소에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도 이씨가 기탁한 성금 30만 원은 금산면에서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김병희 학생 등 3가정에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kwangju.co.kr

조호권씨 등 광주예총 감사패·공로패



조호권·진선기 광주시의원과 조종진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이 23일 광주예총으로부터 올해의 감사패와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조호권 의원은 광주예술문화발전과 광주예총 회관 건립 등 예술문화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로패를 받았다. 진선기 의원은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진흥에 힘써온 업적을 인정 받았고, 조 실장은 공직생활 33년간 예술분야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협 광주본부 ‘성심의 집’에 생필품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준수)와 (사)전국새농민회 광주시회(회장 박종길)는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성심의 집’을 방문해 쌀과 한리봉, 파프리카,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영재·나길례씨 장남 성운군 이상율(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집행위원장)·최연자씨 차남 지야양=25일(토) 오후 2시 30분 여수 포에 베웨딩컨벤션 2층(행복홀)

▲최형태(전 전남도교육청 중등 교육과장)·성정자씨 차남 영권(사업)군 장준표·배양자(전남도 복지 여성국장)씨 장녀 윤희양=26일(일) 오후 1시40분 광주 상록웨딩홀 3층(부궁화홀)

▲광주상고 20회·광주여상 8회 동창회 2010년 월례회(회장 배용희)=28일(화) 오후 6시 미연회관 2층 (계립동 금수장 건너편) 010-9622-2471.

향우회

▲제2회 광주향우회(회장 이하은)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개최=28일(화) 오후 5시 30분 무등산 관광 호텔 4층 대회의장. 062-221-27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2470, 5308.
▲복부비만, 피부관리 센터 무료 상담=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22-1095.
▲오자증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092-226-3700, 3701.

▲한국여성의회 광주지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설진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해제,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모집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미용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div